

편집장레터

소통의 허브, 학보사



한지용 편집장

“여러분, 소통해요” 학과 선배인 김준영 학우(레저스포츠산업 18)가 학과 전체 단독방에 뜬금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학과 단독방은 공지를 위해 사담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선배의 인사에 나와 동기 몇몇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었다. 우리 학교,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관통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준영 선배 역시 장난을 섞긴 했지만 소통하자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준영 선배는 지난해 복학했을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학과 활동이 줄어들어 학반 간 괴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소통하고자 말하는 것이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해 후배들에게 “소통해요”라고 인사한 것이다. 단절의 시간을 지나 극복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코로나로 인한 소통의 부재를 겪은 것은 단순 학생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동안 우리 대학은 구성원 간 소통의 부재로 여러 차례 내분을 겪어야 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주요 사안을 독단적으

로 결정한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는 곧장 학내 갈등으로 이어졌다. 반복되는 갈등은 우리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불통’은 어느덧 우리 학교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최근 학내에서 논란이 됐던 생활관 통제 이슈 역시 소통의 미흡함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나는 이를 직접 취재하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가 갔고, 생활관 측의 통제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통제의 배경을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먼저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통보보다는 대화를 앞세워 화합을 이뤄야 할 시기다. 대화를 통한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행히도 변화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학교의 가장 큰 어른인 문원재 신임 총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고 있다. 5월 초, 문 총장님의 취임을 맞아 나와 후배 기자는 총장님을 찾아뵙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총장님은 인터뷰 내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학내 모든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학교를 이끌 것이라 말씀하셨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제 우리 대학의 불통 이미지가 드디어 사라질 때가 왔음을 실감했다.

문 총장님께서 소통의 뜻을 밝히신 지금, 학보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해보았다. 그 결과,

학보사 역시 학내 구성원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을 깨달았다. 나아가 모든 학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한국체육대학보는 학생과 학교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학생들의 궁금증과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학우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 교직원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끊임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준영 선배가 말한 선후배 간의 소통부터 문 총장님이 말한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선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추억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어렵지 않다. 함께 밥을 먹고 맥주 한잔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소통의 방법이다. 또한, 학내 문제 해결 및 학교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불통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문 총장님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만큼 학보사를 포함한 우리 대학의 모든 집단과 구성원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소통이 우리 대학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보사는 이러한 변화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기자석 II

우리는 모두 한국체대 학생입니다



원지호 수습기자

한국체육대학교는 대한민국 유일 체육종합대학이다. 이곳에 속해 있는 10개의 학과에서는 많은 학생이 미래의 체육 인재가 되기 위해, 혹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체육단련장에서 몸을 가꾸고 키우는 학우들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지식을 쌓는 이들까지. 다 같은 한국체대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학교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 서로를 돕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보게 된다. 체대생이다 보니 경쟁의식이 너무 강한 탓일까? 아니면 본인을 과시하고 싶은 것일까?

예전부터 이어진 체육학과 선수들과 소위 일반학과라고 부르는 생활체육대학(이하 ‘일반학과’) 학생들의 갈등은 아직도 여전하다. 그중 많은 사례가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생긴다. 우리 학교의 체육단련시설은 어느 학교보다 좋다고 자부할

수 있다. 좋은 기구를 사용하는 몸 좋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나도 어느새 벤치에 누워 있고, 덤벨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갈등은 항상 이곳에서 시작됐다. ‘운동 시간을 지켜달라’, ‘운동 기구 정리를 잘해달라’라는 얘기가 들리곤 한다. 물론 일반학과 학생이 했던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학우가 그런 건 아니다. 또 체육학과 학우일 수도, 교직원일 수도 있지 않은가. 흔히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몇 명의 체육학과 학우들이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며 ‘체육학과는 운동만 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혹여나 누군가 ‘체육학과 학우들은 전부 상식이 부족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가정교육 혹은 본인의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일 뿐이다. 학장 시절 피파 흘리며 했던 운동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더불어 일반학과 간의 갈등도 종종 드러난다. 특정 학과에서 논란거리가 생기면 너도나도 앞다퉈서 헐뜯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우리 학교 입결(입시 결과)은 어느 과가 가장 높아?” 가장 많이 본 질문이고, 항상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논쟁이다. 사실 논쟁이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도 이런 다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며 설전을 벌이는 본인들은 얼마나 뛰어나길래 남을 평가하는 것인가? 물론 특수체육교육과는 두 개의 교원자격증이 나온다는 특수성에 당연히 성적대가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다. 고등학생 시절 치렀던 시험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아직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에 수능 성적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좌표가 될 수 없다. 현재 어떤 역량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혹여나 학교생활을 하는 중 불만이 생긴다면 눈을 한번 꼭 감고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 필승관 5층 대강당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의 선창에 맞춰 입학 선서를 외치지 않았는가. 그 설레던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체대 학생이다.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며 본인들만의 경쟁력을 찾았으면 한다. 그것이 지식이나 근육이든 상관없다. 학교 밖은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이지만 안에서는 화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기자석 I

대한민국은 왜 무릎을 꿇는가



기민정 기자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제삼자의 변제’.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변제 방식을 골자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판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을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변제(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을 마련해 판결금 지급)하는 방안을 외교부를 통해 공식 설명했다. 즉,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배상을, 되려 대한민국이 대신 ‘셀프 배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우리 정부의 술선수법 ‘무릎 꿇고’ 들어가는 외교를 통해 한-일 양국 간 서를 외교(양국 간 회담 및 외교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양국을 오가며 벌이는 외교활동)는 12년 만에 재개됐다. 그리고 5월 7일 방한(韓)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혔으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견(私見,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무언의 선을 그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에 적극적인 화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반면, 돌아오는 일본의 암묵적인 대답은 항상 일관됐다. 7.18 한일외교장관 회담 당시 제3자 해법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으나 기시다 총리와 정부 주요 관료들은 이후 광복절에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했으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교과서를 편찬했다. 이뿐인가? 일본 ‘2023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시하면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한국의 시찰에 안전성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한쪽의 일방적인 ‘맞춰주기식’ 외교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외교관계를 두고 정부 스스로 엄청난 성과라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UN총회에서 채택한 가이드라인(피해 배상에는 사실 인정과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등이 포함돼야 한다)에 따른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소지가 있는 변제 방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변제 방안 공식 발표 이후 가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을 본인이 생각했다며, 이후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청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본을 안심시키는 듯한 발언을 남긴 바 있다. 정작 자국 내의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굴욕 외교’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말이다.

해당 문제가 필자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이어져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이를 지원하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두 달 전 무더운 여름날, 필자는 ‘한일청소년 평화교류단’의 일원으로 거리상으로 는 가깝지만 여전히 먼 나라 일본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7박 8일 간의 여정을 떠났다. 당시의 도야마현 ‘후지코시’ 회사 앞에서 문전행동(회사 정문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 견학은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회사 정문 앞에서는 호쿠리쿠 연락회(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변변찮은 장비를 가지고 문전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시위 현장

에서나 다름없이 경찰에 의해 바리케이트가 쳐졌고, 그 너머에는 육일 승천기와 함께 커다란 화성기가 달린 서너 대의 봉고차, 지프차를 몰고 온 일본 우익집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목적이야 시위를 방해하기 위함임이 뻔했다. 후지코시를 향한 촉구의 외침은 시작됐고, 역시나 우익 집단은 커다란 화성기를 통해 시위를 방해했다. “야매로(야めろ, 그만해!)”하는 비열하고도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니 억울함을 비롯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바깥, 심지어 정문에서 그 정도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면 회사 측에서도 얼굴을 비취 볼 법 한데, 얼굴을 내밀어보기는커녕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물류를 운송하는 트럭들만이 종종 얼굴을 내밀 뿐이었다. 그렇게 한데 영긴 소음을 속 정문 한편에는 함께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의 영정사진이 환한 웃음으로 변함없이 함께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며, “유럽은 지난 100년간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했다.”고 이야기했다. 나치로 대표되는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본국 그리고 선대가 저질렀던 과오를 잊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오고 있다. 1970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피해국인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가해국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폴란드 간 동반 관계는 성공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제”라며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이 말한 유럽에서와 같은 미래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일과 폴란드와 같이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외교를 위해 꿇었던 무릎과,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던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보게 된다.



후지코시 문전행동을 함께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정사진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문원재 주 간 | 허진석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한지용
기 자 | 기민정·김수빈·권규태·박소영·박서진·송현일·원지호·강민지·강현석·박정윤·이선우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
전 화 | (02)410-6556

한국체육대학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와 제보는 이름, 연락처, 학번, 학과를 기입해서 이메일(actibeast@knsu.ac.kr)로 보내주시거나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로 방문 바랍니다. 원고가 실리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